

대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쟁 정전6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일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반도평화대회를 이끌어 주신 포교원장스님과 범어사주지스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의 가장 주요한 행사인 ‘자비 구현 인류화합 한반도평화대회’에 참여해 주신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희동참하신 불자님들, 부산 시민을 비롯해서 정성으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성현들의 한결 같은 주장은 자비, 사랑, 관용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추구해야하는 보편적 가치는 평화주의와 인간과 환경의 존중입니다.

유사 이래 인류는 무수한 전쟁을 도발해 왔습니다. 혹자는 그 전쟁의 성과물로 단기간에 과학문명의 발전은 물론, 대륙과 문화와 인종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인류의 번영에 일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당위성조차도,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단 한마디의 이별도 없이 쓰러져간 무수한 인류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그 어떠한 합리화도 궤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의 역사이고 조건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문화 등 모든 것이 교류되고 소통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전쟁이라는 반문명적인 행위를 한다면 인류는 결코 문화와 문명을 발전 변화시켰다 할 수 없습니다.

살생을 자행하는 전쟁은 근절 돼야합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발표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부산선언’을 선언에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구촌 평화선언을 통해 전쟁 없는 세상을 구현해 나가는 위대한 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류사에서 전쟁의 종식이야말로 그동안 전쟁으로 무수히 죽어간 이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며 위로일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 후손에 물려줄 그 어떠한 문명이나 문화보다도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우리가 할 일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의 완성이며, 이를 위해 당사자인 남과 북 그리고 6자회담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지구촌에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장과 염원이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며, 그 동안 대회를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9월 27일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